

#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가출 청소년의 반복 가출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김재엽\* · 성신명\*\* · 박하연\*\*\* · 한기주\*\*\*\*

## 초 목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가출 청소년의 반복 가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여 반복 가출의 경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임상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내(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한 28개의 청소년 쉼터(일시, 단기, 중장기 시설)를 유 의표집 하여 262명의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 발송을 통하여 수집되었고 이 중 총 220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출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 반복 가출, 우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SPSS 23.0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후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반복 가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 지난 1년간 가출 청소년의 66.3%가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경험하였다. 세부 학대 유형의 경험률은 정서학대가 64.4%, 신체학대가 50.7%, 방임이 35.7%로 나타났다. 2) 47.3%에 해당하는 가출 청소년이 지난 1년간 3회 이상 반복 가출을 경험하였다. 3)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가출 청소년의 반복 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 관계에서 우울은 완전 매개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출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선행적이고 체계적인 개입,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개입, 가출 청소년을 위한 사례관리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가출 청소년, 부모로부터의 학대, 반복 가출, 우울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1저자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교신저자, ssmyoung@hanmail.net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공동저자

\*\*\*\* (前) 청소년쉼터 FOR YOU 생활지도교사, 공동저자

## I. 서 론

청소년의 가출 양상이 반복화, 만성화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2016)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44.4%는 2회 이상 반복 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쉼터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평균 9.1회, 여학생은 평균 7.1회의 가출 빈도를 보였다(남미애, 홍봉선, 육혜련, 김은경, 2012). ‘가출-귀가-재가출’을 반복하는 청소년의 경우, 가정 복귀율이 현저히 떨어지며(Baker, McKay, Lynn, Schlange & Auville, 2003), 반복 가출 청소년은 일회성 가출 청소년보다 우울, 약물 중독, 비행 행동, 학업중단, 성매매, 폭력 가·피해 등에서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이상무, 2012; Miles & Okamoto, 2008; Tyler & Bersani, 2008; Fernandles-Alcantara, 2013). 청소년의 첫 가출이 반복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복 가출 요인과 경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부모로부터의 학대는 청소년 가출뿐 아니라 반복 가출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상무, 남성희, 2012; Whitbeck & Hoyt, 1999; Cauce et al., 2000; Tyler, Hoyt, Whitbeck & Cauce, 2001; Edingburg, Harpin, Garcia & Saewyc, 2013). 가출 청소년들이 재가출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이 때리고 욕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등으로 나타났다(백혜정, 방은령, 2009). 반복 가출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대가 일회성 가출 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며(정정숙, 2013). 아동학대가 심각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일수록 높은 가출빈도를 보였다(홍세희, 노언경, 박민선, 2010) 가출 청소년이 가정으로 복귀하더라도 아동학대와 방임이 발생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가출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게 되는 것이다(이현지, 2005).

아동학대를 경험한 가출 청소년은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나, 동시에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된 정서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김재엽, 송아영, 한샘, 2010; 김재엽, 남보영, 2012; 김재엽, 최권호, 2012).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가출 청소년의 공격성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Anooshian, 2005; Crawford, Whitbeck & Hoyt, 2000; Logan-Greene & Jones, 2015), 가출 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의 문제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가출 청소년의 경우 더 우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남영옥, 2001; Bao, Whitbeck & Hoyt, 2000). 가출 청소년 중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나 학대가 있었던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경우보다 2배 정도의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호소하였다(Sullivan & Knutson, 2000). 가출청소년의 부모 학대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가출청소년들은 높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춘, 2013).

우울은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McCarthy & Thompson, 2010). 청소년이 느끼는 우울과 불안은 가출충동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우, 2012), 가출을 시도하는 청소년의 경우 우울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DeMan, 2000). 특히, 가출청소년의 우울은 가출빈도와 높은 관련을 맺고 있다. 조성희와 박소영(2010)은 우울하고 불안한 청소년들이 가출을 감행하고, 불안정한 지지체계로 인하여 우울이 심화되면서 재가출을 시도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반복 가출 청소년의 경우, 일회성 가출 청소년에 비해 더 우울함을 보였으며(정정숙, 2013), 우울할수록 가출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도형, 2009). 이에 가출 청소년이 귀가 이후에도 경험하는 아동학대는 반복가출로 이어지고 이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년 가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일회성 가출에 주목하거나(문재우, 2012; 박정선, 황성현, 2010; 오승환, 2010) 가출청소년의 실태, 원인, 개입방안을 제시(김도형, 2009; 김성경, 2010; 이상무, 남성희, 2012; 이현지, 2005; 정정숙, 2013; 차명호, 양종국, 정경용, 2010)하는데 그치고 있다. 일회성 가출보다 반복 가출의 위험성이 더 크에도 불구하고 반복 가출의 위험 요인과 경로를 파악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출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이 반복 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 변수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출 청소년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가출 청소년이 경험한 부모로부터의 학대의 실태는 어떠한가?
2.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반복 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반복 가출의 관계에서 우울은 매개효과를 갖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가출 청소년의 반복 가출

최근 청소년의 가출은 양적인 문제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차명호, 양종국, 정경용, 2010). 선행연구들은 이에 기초하여 반복 가출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복 가출은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을 종료하고 가정으로 복귀하는 기점인 3-6회 이후에 발생하는 가출을 의미한다(YMCA 청소년쉼터, 1996; 남미애, 홍봉선, 양혜진, 2007; 최해경, 김선숙, 2009). 국가승인통계인 '2008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서도 청소년의 가출 실태와 양상을 조사하면서 3번 이상의 가출 빈도를 반복 가출로 정의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2014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초등학교생의 37%, 중·고등학교생의 43%, 위기청소년의 77%가 일회성 가출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4). 또한, 유성경, 송수민과 이소래(2001)가 실시한 만성적 재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에서 전체 가출경험 청소년집단의 65.7%가 반복 가출 양상을 보였으며 최해경과 김선숙(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반복 가출 청소년이 조사대상 가출청소년의 58.0%를 차지하였다. 즉 가출 청소년에게서 반복 가출은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실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반복 가출한 집단의 경우 일회성 가출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학교성적, 자아 존중감을 보였으며, 높은 우울 및 불안과 자살충동을 느꼈다(김성경, 2010). 가출유형에 따른 가출 전과 후의 변화를 비교한 백혜정과 방은령(2009)의 연구에서도 일회성 집단에 비해 반복 가출 집단은 전반적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학교 다니기가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이처럼 반복 가출을 한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정서적 어려움을 직면하며 개인생활과 학교생활에서도 부적응을 겪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이 가정에 복귀한 이후 다시 가출을 하게 되는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개입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 2. 가출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

청소년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는데 가정환경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특히,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높다(김재엽, 남보영, 2012). 청소년 가출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가족체계와 개인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있다(박정신, 황성현, 2010). 여성가족부(2010)는 청소년 가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적 특성으로 가족구조, 가족기능,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생활수준 등을 제시하였다.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이유를 조사한 남미에 외(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와의 불화와 부모로부터의 폭력이 응답의 31.1%를 차지하였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 가출의 직접적인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홍세희 외, 2010; 정윤경, 원경림, 최지현, 2012).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가출 청소년의 결정적인 가출동기로 작용하는 것을 볼 때, 가출 청소년은 아동학대에 매우 심각하게 노출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Keeshin과 Campbell(2011)의 연구에서는 64명의 가출 청소년 중 84%가 성장기 아동학대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고등학생의 가정환경 관련 변인과 가출 간의 관계를 연구한 김경희와 김지수(2007)는 비가출군과 가출군 사이의 비교를 통하여 가출군에 속한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아동학대로 가출을 한 청소년의 경우, 가정 내 역기능적인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가출횟수가 증가하게 된다(이상무, 남성희, 2012). 유성경 외(2001)는 재가출 집단에서 집에 돌아갔었을 때 부모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는 반응이 28.1%였음을 제시하며 가출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대처가 반복 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부모로부터의 학대는 가출 청소년의 가정 복귀를 어렵게 하는 동시에 가출 빈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이상무, 2012).

## 3. 가출 청소년의 우울

청소년의 가출 관련 변인 중 개인적 특성으로는 우울이 있다(배정환, 이윤호, 심혜인, 이정민, 2013). 가출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Whitbeck, Hoyt and Bao(2000)의 연

구에 따르면 남자청소년은 23%, 여자청소년은 39%가 CES-D에서 임상적 우울을 판단하는 기준인 28점을 초과하였다. 청소년의 가출 과정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기 경험하는 우울이 가출 충동을 유발하며(문재우, 2012)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출을 시도한다고 밝히고 있다(오승환, 2010; 조성희, 박소영, 2010).

이러한 가출 청소년의 우울은 부모의 학대와 방임에서 기인하는 경향이 있다(정정은, 문성호, 2008).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남영옥(2001)의 연구에서도 아동학대와 같은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Tucker, Edelen, Ellickson and Klein(2011)은 종단연구를 통하여 부정적인 가정환경이 가출 행동을 일으키며 해당 청소년들은 성인이 된 후에 알코올 의존 증세와 심각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을 보고하였다.

가정에서의 학대가 우울을 매개로 가출로 이어지는 것은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일반긴장이론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긴장이 분노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켜서 비행이나 범죄라는 부정적인 행동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Francis(2014)는 여자 청소년에게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긴장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과 가출로 이어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특히, 한국 청소년에게서도 부모로부터의 폭력, 협박과 모욕 등이 우울을 매개로 가출행동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밝혀졌다(Baek, Roberts, Higgins & Losavio, 2017). 따라서,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반복 가출이라는 새로운 가출 양상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출 청소년의 가족 및 일상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의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청소년 쉼터 28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해당 28개 기관에서 설문에 참여할 가출 청소년을 무작위 표집(Random Sampling)하여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총 262부의 설문

지가 회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회수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응답이 부실한 24부와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에 주목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조손 가정, 친척과 거주하는 경우 및 기타에 해당하는 18부를 제외한 220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가출청소년의 반복 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두 변수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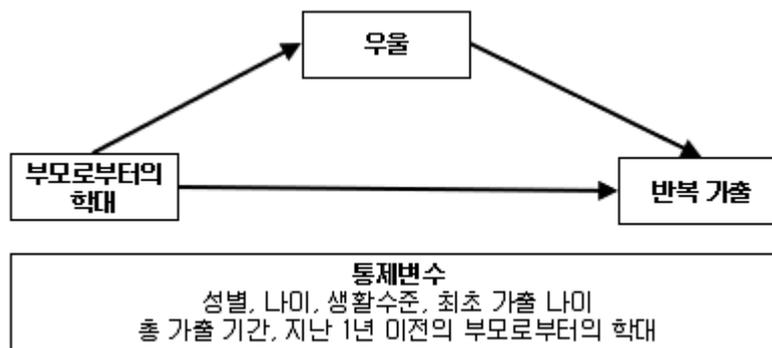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3. 측정도구

### 1) 독립변수: 부모로부터의 학대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s, Hamby, Finkelhor, Moore and Runyan(1998)의 PCCTS(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를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에 의한 정서학대, 신체학대 와 방임학대를 포함하여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범주는 '없음' 0점에서 '10회 이상' 4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지난 1년 동안 부모님이 나에게 한 행동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최종 분석에서는 총 17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해당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43이다.

## 2) 종속변수: 반복 가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출 경험에 주목하여 반복 가출을 정의하였다. 따라서 반복 가출을 총 가출 횟수가 아닌 지난 1년 동안의 가출 횟수로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에서 고안한 비행행동 척도를 김희수(2004)가 수정한 척도 17 문항 중 지난 1년 동안의 가출 경험을 묻는 '가출을 한 적이 있다'를 활용하였다. 응답 범주는 '없음' 0점에서 '10번 이상' 4점까지이며 평균값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매개변수: 우울

우울은 오경자, 홍강의와 이혜련(1997)이 Achenbach와 Edelbrock(1991)의 YSR(Youth Self Report)을 수정 및 보완하여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한 K-YSR 중 내재화 문제에 해당하는 우울감 1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2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최종 분석에서는 총 16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해당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15이다.

##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로부터의 학대 외에 가출 청소년의 반복 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나이, 생활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출 특성에 해당하는 총 가출 기간 및 최초 가출 나이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이상무, 2012; 이민수, 2013; 한기주, 2015). 또한, 독립변수인 지난 1년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의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지난 1년 이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없음' 0, '있음' 1로 더미 변수화하여 통제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3.0와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23.0으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에 다중회귀 분석을 통하여 변수 간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은 SPSS Process Macro의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통제변수의 실태는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117명(54.4%), 여자가 98명(45.6%)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비교적 많았다. Thornberry(1987)의 상호작용이론에 기초하여 연구 대상자를 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초기 청소년이 3명(1.4%), 중기 청소년이 59명(27.1%), 후기 청소년이 156명(71.6%)으로 후기 청소년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생활수준의 경우 '중'이 75명(35.9%)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가출 특성을 살펴보면 최초 가출 나이는 중기 청소년, 초기 청소년, 후기 청소년 순이었으며 중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만 14-15세에 처음으로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이 100명(55.2%)으로 나타났다. 총 가출 기간은 단기, 중기, 장기, 일시 순으로 7일에서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89명(45.4%)이었다. 지난 1년 이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는 연구 대상자의 83.1%인 133명이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일반적 특성	성별	남	117	54.4
		여	98	45.6
		소계	215	100.0
	나이	초기(만 11-13세)	3	1.4
		중기(만 14-16세)	59	27.1
		후기(만 17세 이상)	156	71.6
		소계	218	100.0
	생활수준	상	5	2.4
		상중	12	5.7
		중	75	35.9
		중하	73	34.9
		하	44	21.1
	소계	209	100.0	
	최초 가출 나이	초기(만 11-13세)	45	24.9
		중기(만 14-16세)	100	55.2
		후기(만 17세 이상)	36	19.9
		소계	181	100.0
	총 가출 기간	일시(7일 미만)	37	18.9
		단기(6개월 미만)	89	45.4
중기(1년 미만)		24	12.2	
장기(1년 이상)		46	23.5	
소계		196	100.0	
지난 1년 이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	유	133	83.1	
	무	27	16.9	
	소계	160	100.0	

## 2. 주요변수별 실태

### 1) 독립변수: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 실태

가출 청소년이 경험한 부모로부터의 학대 실태는 표 2와 같다. 최근 1년간의 학대 경험 유무를 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정서학대는 130명(64.4%), 신체학대는 102명(50.7%), 방임은 71명(35.7%)이 경험하였다. 세 학대 유형 중의 하나라도 경험한 경우는 134명(66.3%)이었다. 전체 학대 경험의 평균값은 .630( $SD=.7999$ )으로 나타났다.

표 2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 실태

구분	경험빈도(%)		
	유	무	전체
정서학대	130(64.4)	72(35.6)	202(100.0%)
신체학대	102(50.7)	99(49.3)	201(100.0%)
방임	71(35.7)	128(64.3)	199(100.0%)
전체	134(66.3)	68(33.7)	202(100.0%)
구분	<i>M</i>	<i>SD</i>	Min-Max
전체	.630	.7999	0-4

### 2) 종속변수: 반복 가출 실태

지난 1년 동안의 가출 횟수로 살펴본 반복 가출의 실태는 표 3과 같다. 보건복지가족부(2008)는 3회 이상 가출 청소년을 반복 가출 청소년으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3회 이상 반복 가출한 청소년은 47.3%로 나타났으며, 10회 이상 반복 가출한 청소년은 22.3%를 차지하였다.

표 3  
반복 가출 실태

구분	빈도	%	
반복 가출	없음	71	32.3
	1-2번	45	20.5
	3-5번	34	15.5
	6-9번	21	9.5
	10번 이상	49	22.3
	소계	220	100.0
구분	M	SD	Min-Max
반복 가출	1.691	1.5483	0-4

### 3) 매개변수: 우울 실태

연구 대상자의 우울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우울감을 묻는 총 16문항의 평균으로 살펴본 가출 청소년의 우울은 .628(SD=.4556)로 분석되었다.

표 4  
우울 실태

구분	M	SD	Min-Max
우울	.628	.4556	0-2

### 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Pearson's 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이동학대는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반복 가출, 우울과 반복 가출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표 5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성별	1								
나이	-.024	1							
생활 수준	-.005	-.093	1						
최초 가출 나이	.032	.208**	-.005	1					
총 가출 기간	.089	.150*	-.013	-.204**	1				
지난 1년 이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	.017	.028	-.072	-.063	-.061	1			
부모로부터의 학대	.037	-.103	-.039	-.033	-.010	.321**	1		
우울	.252**	.050	-.161*	-.016	.041	.261**	.201**	1	
반복 가출	.034	.089	-.063	-.233**	.264**	.077	.148*	.245**	1

\* $p < .05$ , \*\* $p < .01$

#### 4. 모형검증: 가출 청소년이 경험한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반복 가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 1) 1단계 분석: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반복 가출에 미치는 영향

가출 청소년이 경험한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반복 가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독립변수로, 반복 가출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따르면 1단계 분석의 회귀모형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F=3.563$ ,  $p<.01$ ), 총 설명력은 18.8%(adjusted  $R^2 = .123$ )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는 최초 가출 나이( $\beta=-1.710$ ,  $p<.01$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최초 가출 시기가 이룰수록 반복 가출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인 부모로부터의 학대는 반복 가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203$ ,  $p<.05$ ), 이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반복 가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6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반복 가출에 미치는 영향

구분	변인	B	SE	$\beta$	t
통제 변수	성별	.090	.272	.029	.330
	나이	.039	.063	.055	.609
	생활수준	-.252	.154	-.147	-.1640
	최초 가출 나이	-.090	.052	-.156	-1.710**
	총 가출 기간	.161	.055	.265	2.916
	지난 1년 이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	.151	.361	.039	.418
독립 변수	부모로부터의 학대	.402	.187	.203	2.144*
R <sup>2</sup>				.188	
Adj. R <sup>2</sup>				.135	
F(sig.)				3.563**	

\* $p<.05$ , \*\* $p<.01$

## 2) 2단계 분석: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출 청소년이 경험한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독립변수로, 우울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따르면 2단계 분석의 회귀모형 F값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으며( $F=3.712$ ,  $p<.01$ ), 총 설명력은 19.4%(adjusted  $R^2 = .142$ )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는 성별( $\beta=.207$ ,  $p<.05$ )과 지난 1년 이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 $\beta=.236$ ,  $p<.05$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의 경우 여자 가출 청소년이 남자 가출 청소년보다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 이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우울 수준을 보였다. 독립변수인 부모로부터의 학대는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236$ ,  $p<.05$ ), 이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해질 위험이 높음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표 7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구분	변인	B	S.E	$\beta$	t
통제 변수	성별	.191	.080	.207	2.373*
	나이	.005	.019	.025	.272
	생활수준	-.042	.046	-.082	-.911
	최초 가출 나이	.002	.016	.009	.100
	총 가출 기간	.018	.016	.101	1.117
	지난 1년 이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	.273	.107	.236	2.550*
독립 변수	부모로부터의 학대	.111	.055	.189	2.005*
R <sup>2</sup>				.194	
Adj. R <sup>2</sup>				.142	
F(sig.)				3.712**	

\* $p<.05$ , \*\* $p<.01$

### 3) 3단계 분석: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반복 가출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가출 청소년이 경험한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우울을 매개로 반복 가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따르면 3단계 분석의 회귀모형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F=4.225$ ,  $p<.001$ ), 총 설명력

은 24.0%(adjusted R<sup>2</sup> = .183)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는 총 가출 기간( $\beta = .240, p < .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출 기간이 오래될수록 반복 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립변수인 부모로부터의 학대는 반복 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매개변수인 우울은 반복 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beta = .255, p < .01$ ) 완전매개모형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가출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우울 수준을 높이고, 우울 수준이 높아질수록 반복 가출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8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반복 가출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구분	변인	B	S.E	$\beta$	t
통제 변수	성별	-.074	.271	-.024	-.274
	나이	.034	.062	.049	.556
	생활수준	-.217	.150	-.127	-1.444
	최초 가출 나이	-.091	.051	-.159	-1.786
	총 가출 기간	.145	.054	.240	2.693**
	지난 1년 이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	-.083	.361	-.021	-.229
독립 변수	부모로부터의 학대	.306	.185	.155	1.652
매개 변수	우울	.858	.316	.255	2.718**
R <sup>2</sup>				.240	
Adj. R <sup>2</sup>				.183	
F(sig.)				4.225***	

\* $p < .05$ , \*\* $p < .01$ , \*\*\* $p < .001$

#### 4) 4단계 분석: 부트스트래핑 분석

가출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반복 가출의 관계에서 우울은 완전매개효

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를 통하여 총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표 9와 같다. 부트스트래핑 결과 매개효과의 크기는 .095였으며 95% 신뢰구간 범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독립변수인 부모로부터의 학대는 우울을 매개해야만 반복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의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표 9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B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L
부모로부터의 학대 → 우울 → 반복 가출	.095	.0661	.0032	.2713

## V. 논의 및 결론

연구 대상인 가출 청소년의 각 변수별 실태와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반복 가출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년간 가출 청소년들은 정서학대는 64.4%, 신체 학대는 50.7%, 방임은 35.7%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척도로 일반 청소년들이 경험한 아동 학대를 측정한 김재엽, 류원정과 김준범(2016)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일반 청소년의 정서학대 35.1%, 신체학대 27.5%, 방임 8.4%보다 매우 높은 결과이다. 또한, 일반 청소년들인 경험하는 정서학대, 신체학대와 방임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가출 청소년들의 가정폭력 경험이 높다는 선행연구(이상무, 남성희, 2012; Whitbeck & Hoyt, 1999; Cauce et al., 2000; Tyler et al., 2001; Edingburg et al., 2013)와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경험하는 가정폭력의 경험이 높다는 것은 가출 청소년이 가정으로 복귀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지난 1년간 가출 청소년들의 반복 가출 실태를 살펴보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은 47.3%로 나타나 가출청소년의 10명 중 5명은 집에 귀가 하더라도 다시 가출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청소년 가출의 문제가 반복화, 만성화되고 있다는 선행연구(이상무, 2012; Miles & Okamoto, 2008; Tyler & Bersani, 2008; Fernandles-Alcantara, 2013)와 같은 결과로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 반복 가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진행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가출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모로부터의 학대는 우울을 매개로 반복 가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청소년이 부모의 학대를 경험할수록 더 우울해진다는 선행연구(남영옥, 2001; 이희춘, 2013; Whitbeck et al., 2000; Sullivan & Knutson, 2000)와 우울한 청소년의 가출 횟수가 증가한다는(김도형, 2009; 조성희, 박소영, 2010; 문재우, 2012; DeMan, 2000)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반복 가출을 경로는 파악하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출 청소년들은 귀가 이후에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우울해지고 이러한 우울감으로 인해 반복가출이 일어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출 청소년의 반복 가출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 청소년 가족에 대한 개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 가출을 시도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교사, 담임교사, 쉼터 사회복지사는 가족에 대한 선행적인 개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가출 청소년이 가정에 복귀하더라도 가정에서 정서, 신체, 방임 학대의 지속은 다시 가출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 가정을 대상으로 가출 이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예방과 해결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가 없던 가족이라면 가정 복귀 이후에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을 교육하여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가 있었던 가족이라면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선행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해결을 위한 부모상담, 가족치료,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반복 가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우울을 매개로 반복 가출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반복 가출 청소년이 높은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우울을 경험하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스크리닝,

치료, 상담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가출 청소년의 우울감을 낮추는 것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라는 충격적 사건이 반복 가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개입점인 것이다.

셋째, 반복 가출 청소년을 위한 사례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복 가출 청소년은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라는 문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우울을 높게 경험하게 되는 복잡하고 만성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의 가출이 반복화되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출 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일시 보호,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효과성 미비, 단기 쉼터와 중장기 쉼터와의 연계 부족, 가출 청소년 종사자 부족(백혜정, 방은령, 2009; 김지연, 정소연, 2014)등의 어려움이 있어, 반복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복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통합적이고 지속적이고 서비스가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회성 가출을 다루거나, 반복가출의 원인을 밝혀내는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귀가 이후에도 진행되는 부모로부터의 학대는 우울을 매개로 반복 가출로 이어진다는 반복가출의 경로를 밝혀냈다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수도권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으로 한정되었으며, 반복 가출의 원인을 가정변인 중 아동학대로 한정하여 다른 위험요소를 폭넓게 살펴보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수도권 이외로 확대하고,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가출 청소년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반복 가출의 가정변인 이외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반복 가출을 여러 경로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김경희, 김지수 (2007). 고등학생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3(3), 338-348.
- 김도형 (2009). **청소년 재 가출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경 (2010). 가출경험 중고등학생의 개인특성, 가족특성 및 폭력피해 경험과 가출 빈도 관련성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7, 93-111.
- 김재엽, 남보영 (2012). 신체학대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4(3), 169-191.
- 김재엽, 최권호 (2012). 중북학대 피해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비행행동: 신체학대와 방임의 중복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193-213.
- 김재엽, 류원정, 김준범 (2016). 성장기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친구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7(1), 5-27.
- 김재엽, 송아영, 한샘 (2010). 청소년 자녀의 가정폭력목격경험과 자녀학대피해경험 중복피해에 따른 우울 및 폭력비행행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2), 1-26.
-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청소년들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6, 31-59.
- 김지연, 정소연 (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연구보고 14-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수 (2004). **저소득 가정 아동의 비행행동에 대한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남미애, 홍봉선, 양혜진 (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남미애, 홍봉선, 육혜련, 김은경 (2012).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내실화 방안연구** (연구보고 2012-44). 서울: 여성가족부.
- 남영옥 (2001).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성격 특성이 가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45, 156-184.

- 문재우 (2012).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연구**, 38(1), 19-34.
- 박정선, 황성현 (2010). 청소년 가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출충동 변인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0), 1-21.
- 배정환, 이윤호, 심혜인, 이정민 (2013).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20(2), 83-112.
- 백혜정, 방은령 (2009).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연구보고 09-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서울YMCA청소년쉼터 (1996). **청소년가출에 대한 설문조사보고서**. 서울: 서울YMCA 청소년쉼터.
- 여성가족부 (2010). **가족의 특성에 따른 가출청소년 유형별 귀가지도** (연구보고 2010-40).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연구보고 2014-52).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연구보고 2017-04). 서울: 여성가족부.
- 오경자, 홍강의, 이혜련 (1997). **청소년자기행동평가척도 (K-YSR)**.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오승환 (2010). 청소년 가출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 요인-가출충동과 가출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301-324.
- 유성경, 송수민, 이소래 (2001). 만성적 재가출 청소년들의 가출 위험요소와 보호요소에 관한 분석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1), 71-87
- 이민수 (2013). 청소년의 반복가출과 가출전환 경험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5(2), 87-119.
- 이상무 (2012). 생태체계요인이 가출유형에 미치는 영향: 다항로지트 회귀모델을 활용한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27-148.
- 이상무, 남성희 (2012). 청소년 가출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19(1), 85-108.
- 이현지 (2005). 가출청소년 재가출방지를 위한 지지체계의 보호요인. **청소년학연구**, 12(4), 283-304.

- 이희춘 (2013). **가출청소년의 부모학대 경험과 우울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경은, 문성호 (2008). 청소년가출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5, 219-241.
- 정윤경, 원경립, 최지현 (2012). 가정폭력이 청소년 가출에 미치는 영향과 유해업소 출입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12), 159-179.
- 정정숙 (2013). **남녀 가출청소년의 가정 복귀 및 반복 가출 관련요인 분석**.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성희, 박소영 (2010). 가출 경험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1), 289-315.
- 차명호, 양종국, 정경용 (2010).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분석. *소년보호 연구*, 15, 165-192.
- 최해경, 김선숙 (2009). 가출청소년의 가족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0(2), 89-108.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연구보고 1996-03).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한기주 (2015). **가정폭력경험이 가출청소년의 반복 가출에 미치는 영향: 가족질서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노연경, 박민선 (2010). 청소년의 가출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생 태체계적 변수들과의 관련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17(2), 181-201.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91). *Youth self-report and profile*. Burlington: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 Anooshian, L. J. (2005). Violence and aggression in the lives of homeless childr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20(6), 373-387.
- Baek, H., Roberts, A. M., Higgins, G. E., & Losavio, M. M. (2017). The impact of negative family environment and depression on running away from home among Korean adolescents.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Review*, 27(3), 188-202.

- Baker, A. J., McKay, M. M., Lynn, C. J., Schlange, H., & Auville, A. (2003). Recidivism at a shelter for adolescents: First-time versus repeat runaways. *Social Work Research, 27*(2), 84-93.
- Bao, W. N., Whitbeck, L. B., & Hoyt, D. R. (2000). Abuse,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4), 408-420.
- Cauce, A. M., Paradise, M., Ginzler, J. A., Embry, L., Morgan, C. J., Lohr, Y., & Theofelis, J. (2000). The characteristics and mental health of homeless adolescents: Age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8*(4), 230-239.
- Crawford, D. M., Whitbeck, L. B., & Hoyt, D. R. (2011). Propensity for violence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An event history analysis. *Crime & Delinquency, 57*(6), 950-968.
- De Man, A. F. (2000). Predictors of adolescent running away behavior.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28*(3), 261-267.
- Edinburgh, L. D., Harpin, S. B., Garcia, C. M., & Saewyc, E. M. (2013). Differences in abuse and relate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by runaway status for adolescents seen at a US child advocacy centr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resilience, 1*(1), 4.
- Fernandes-Alcantara, A. L. (2013). *Runaway and homeless youth: Demographics and programs*.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Francis, K. A. (2014). General strain theory, gender, and the conditioning influence of negative internalizing emotions on youth risk behaviors.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12*(1), 58-76.
- Keeshin, B. R., & Campbell, K. (2011). Screening homeless youth for histories of abuse: Prevalence, enduring effects, and interest in 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35*(6), 401-407.
- Logan-Greene, P., & Jones, A. S. (2015). Chronic neglect and aggression/delinquency:

- A longitudinal examination. *Child abuse & neglect*, 45, 9-20.
- McCarthy, M. D., & Thompson, S. J. (2010). Predictors of trauma-related symptoms among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Loss and Trauma*, 15(3), 212-227.
- Miles, B. W., & Okamoto, S. K. (2008). The social construction of deviant behavior in homeless and runaway youth: Implications for practic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5(5), 425.
- Straus, M. A., Hamby, S. L., Finkelhor, D., Moore, D. W., & Runyan, D. W. (1998). Identification of child abuse with the PCCT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2(4), 249-270.
- Sullivan, P. M., & Knutson, J. F. (2000). The prevalence of disabilities and maltreatment among runaway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24(10), 1275-1288.
- Thornberry, T. P. (1987). Toward an interactional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25(4), 863-892.
- Tucker, J. S., Edelen, M. O., Ellickson, P. L., & Klein, D. J. (2011). Running away from home: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risk factors and young adult outcom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5), 507-518.
- Tyler, K. A., & Bersani, B. E. (2008). A longitudinal study of early adolescent precursors to running away.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8(2), 230-251.
- Tyler, K. A., Hoyt, D. R., Whitbeck, L. B., & Cauce, A. M. (2001). The impact of childhood sexual abuse on later sexual victimization among runaway youth.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2), 151-176.
- Whitbeck, L., & Hoyt, D. (1999). *Nowhere to grow: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New York: Aldine de Gruyter.
- Whitbeck, L., Hoyt, D., & Bao, W. (2000). Depressive symptoms and co-occurring depressive symptoms, substance abuse, and conduct problems among runaway and homeless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71(3), 721-732.

## ABSTRACT

### The effects of child abuse on repetitive runaway behavior amongst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Kim, Jaeyop\* · Sung, Shinmyoung\*\* · Park, Hayeon\*\*\* · Han, Kiju\*\*\*\*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repetitive runaway behavior and to investigate the pathology of repetitive runaways. To these ends, using purposive sampling, 262 runaway adolescents from 28 runaway shelters in metropolitan areas were surveyed, and a total of 220 data sets were utiliz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3.0.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revealed that 66.3% of runaways had experienced child abuse of one form or another in the past year. Second, 47.3% were repetitive runaways. Third, depression had a full-mediating effect between child abuse and repetitive runaway behavior. Based on these findings, systematic family intervention, mental health interventions, and creating a case management system for runaway adolescents were proposed.

Key Words: runaway adolescents, child abuse, repetitive runaway, depression

투고일: 2017. 12. 11, 심사일: 2018. 1. 29, 심사완료일: 2018. 2. 13

---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 Professor

\*\*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 Ph.D. Student

\*\*\*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 M.S.W. Student

\*\*\*\* (Former) Youthshelter FOR YOU, Guidance Counselor